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김 정 아¹⁾ · 김 인 경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국제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각 나라들 간의 상호교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교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물결로 인하여 유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09)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는 총 75,850명으로 2003년에 12,314명에 비해 약 5배정도 증가하였고 출신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70,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인 유학생이 53,461명으로 전체의 70.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많은 대외적 홍보, 한류열풍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보며, 현재 국내 대학들의 국외 대학과의 결연을 통한 활발한 학생연수 및 유학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학은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나, 유학을 진행함으로써 겪는 타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부분들도 발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유학에 대한 신중함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 적응이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심리적 변화 현상을 말하며 현재 유학생들은 문화

부적응으로 인하여 사회심리적인 문제, 행동문제 등의 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Henkin et al., 2009; Sandhu & Asrabadi, 1994).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인간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Sandhu & Asrabadi, 1994), 이와 같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타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유학생의 정서적인 부분과 학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의 단순한 공부만이 아닌 새로운 문화의 적응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 사료되며 이 같은 스트레스는 유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하정희(2008)의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대학생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크게 학업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문제, 정서적 문제, 미래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 학교 제도에 대한 불만 등으로 정리하였고 각 대학교들의 중국 유학생 상담시스템 및 제도적 정책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변인에 관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우울, 학업성적 및 한국어 말하기 능력 등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인으로 설명하였고(김희경 등, 2010), 임춘희(2009)의 연구에서는 문화차이, 수업과 교육 정보 및 진로 등의 교육적인 문제, 유학으로 인한 심리적인 외로움, 경제적인 문제들을 스트레스의 변인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McGinley 등(2010)의 멕시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다른 사람을 돕거나 협동하고 다른

주요어 : 중국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1) 세명대학교 교수

2)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과 박사과정생(교신저자 E-mail: inkyoung19@naver.com)

투고일: 2011년 2월 1일 심사완료일 2011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5일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사회적행동을 잘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변인으로 언급된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를 돌보아주며, 가치감을 갖게 해주고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Cobb, 1976)로서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박지원, 1985). Khan 과 Husain(2010)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심리적 강점과 주관적인 안녕에 대한 매개변수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었다(오가실 등, 2008).

어떤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생기는 개인이 갖는 능력, 신념 등을 말하는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결정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Bandura, 1977), 현재 진행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선택을 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에 강한 영향을 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사고방식과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 걱정과 불안이 앞서서 결국은 자신의 일을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점차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해서 실패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이동영, 1997). 김아영과 차정은(1996)은 학생의 학습에 작용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학생의 학습과 정서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은 학습을 진행하는 학생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고, 이와 같은 자기 효능감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지은, 2006).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 자신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능력과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유학생들의 학업과 그 밖의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 앞으로 이들의 학업성취 및 미래의 진로 등을 생각하면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근거한 맞춤형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변수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중점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고, 그 영향력을 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마다 결과의 차이

를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간호학적인 관점에서 반복 연구를 시행함은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앞으로 유학생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될 것을 예측한다면 현재시점에서의 반복연구 및 정확한 영향요인 규명,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학생들의 적응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을 지지해주는 관련 요인을 발견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맞춤형 간호중재 및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간호중재영역 확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들이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정도를 조사하고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보며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에 대해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들이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충북 J시에 위치한 일개 4년제 대학에 유학중인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위해 중국어 뿐 아니라 한국어 소통도 충분히 가능한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작성 전 및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는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자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자기평가기입방식으로 설문하였다. 대상자 수는 통계방법에 근거한 G 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 $1-\beta=.95$, 효과크기 .15로 119명을 산출하였으며 10%정도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미흡한 응답 및 무응답의 7명을 제외한 최종 연구 대상자는 143명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일반적 특성 18문항과 문화적응스트레스 36문항, 자기효능감 24문항, 사회적지지 33문항으로 총 1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도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 및 학업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특성은 총 18문항으로 성별, 나이, 전공, 학력, 종교, 경제상태, 현재 거주형태, 유학 이유, 총 한국생활 기간, 주관적인 학업 만족정도, 한국어 수준, 전공 성적, 학업 후 진로,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폐쇄형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Sandhu & Asrabadi, 1994) 본 연구에서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외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중(1996)이 번안한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미워함,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기타의 7개의 하위영역,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서 점수범위는 36점에서 1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승중(1996)이 179명의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람 간 상호작용에서 얻는 지지로서,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개념인 연을 구조적 지지로 하고 정, 믿음, 도움, 사랑을 포함하여 기능적 지지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건강이나 개인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오가실 등, 2008).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오가실 등(2008)의 Korean social support questionnaire(KSSQ)의 part II(기능적 지지)를 사용하였다. KSSQ는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적 측면 1문항과 기능적 측면 32문항이다. 도구 개발당시 대학생 658명을 대상으로도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하여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Brandt와 Weinert(1981)의 PRQ도구를 사용하여 동시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므로써 사회적 지지를 적절하게 측정하는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 3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였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생기는 개인이 갖는 능력, 신념 등을 말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으로서 개인의 행동 결정에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Bandura, 1977; 이영휘, 이영자, 1999).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을,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력 기제 등을, 과제난이도 선호는 목표 설정시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과제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서 점수범위는 24점에서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 .74$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143부의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 학업특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 및 학업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공선성 진단 후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및 학업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2.82±1.74세였으며 남학생은 48.3%(69명), 여학생은 51.7%(74명)이었다. 대상자의 전공은 76.2%(109명)가 인문·사회학 계열이었으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2.7%(104명)이었다. 유학기간은 1~3년 미만이 62.9%(90명), 그 다음으로는 3년 이상이었다. 학생들의 거주형태를 보면 기숙사 거주가 77.6%(111명)이었고 경제 상태는 상, 중, 하에서 대부분(80.4%)이 중간정도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건강하다'가 49%(70명), 그 다음 44.8%(64명)가 건강은 '보통이다'로 응답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중간이상이었다.

대상자의 학업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학업 시 대상자가 자신이 인지한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모든 영역을 전체 대상자의 60%이상인 중간정도 구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말하기와 쓰기능력이 읽기와 듣기능력보다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성적은 중위권이

75.5%(108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하위권, 상위권 순이었다. 성적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하다'가 93.7%(134명)로 대부분이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93.7%(134명)가 만족하지 못하였다. 학업 후 진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국에 돌아가서 취업 한다'가 58.0%(83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학업을 계속 진행한다.' 23.1%(33명)이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수준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 수준을 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가능점수 36~180점 중에 최저 36점, 최고 152점으로 평균 95.17±22.42이었다. 사회적지지는 가능점수 32~160점 중에 최저 33점, 최고 160점으로 평균 75.41±28.36점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가능점수 24~120점 중에 최저 29점, 최고 114점으로 평균 74.17±12.07점이었었다 <Table 3>.

일반적 특성 및 학업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정도를 보면 거주형태($t=-2.031, p=.044$), 주관적 건강상

<Table 1>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elf efficacy	
			Mean±SD	t/F	Mean±SD	t/F	Mean±SD	t/F
Age(years)	22.82±1.74							
Gender	Male	69(48.3)	95.60±23.55	.222	81.94±27.96	2.719**	75.30±10.97	1.087
	Female	74(51.7)	94.77±21.45		69.31±27.54		73.12±12.89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9(76.2)	97.95±22.50	2.643	75.65±28.54	.920	74.57±10.59	1.505
	Natural science	5(3.5)	84.40±11.61		93.40±39.34		74.20±12.30	
	Industrial engineering	19(13.3)	89.00±21.19		72.89±27.63		75.84±15.80	
	Art and physical education	10(7.0)	82.10±21.65		68.50±21.28		66.60±17.10	
Religion	Christianity	14(9.8)	97.71±15.81	1.741	64.93±26.62	1.003	75.57±10.03	.131
	Catholicism	2(1.4)	102 ± 6.36		61.50± .70		78.00±18.38	
	Buddhism	21(14.7)	104.67±15.25		70.38±25.04		73.67±11.69	
	Others	2(1.4)	112.00±31.11		82.00±19.80		71.50±12.02	
	None	104(72.7)	92.45±23.94		77.97±29.36		74.06±12.41	
Length of stay (Year)	<1	7(4.9)	86.14±24.13	1.165	52.71±21.58	.634	69.29±19.54	2.479
	1~ <3	90(62.9)	97.10±23.34		77.23±28.35		74.60±11.50	
	≥3	46(32.2)	92.78±20.12		75.28±28.27		74.09±11.77	
Type of residency	Dormitory	111(77.6)	93.15±23.16	-2.031*	75.14±28.67	-.212	74.11±12.61	-.123
	Boarding house and etc.	32(22.4)	102.19±18.25		76.34±27.66		74.40± 9.79	
Economic status	High	4(2.8)	106.25±21.65	.763	86.25±16.88	2.585	75.50± 5.74	.291
	Middle	115(80.4)	94.23±23.33		72.77±28.69		74.48±12.32	
	Low	24(16.8)	97.88±17.58		86.21±25.92		72.50±11.39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a	70(49.0)	93.24±24.03	3.174*	73.46±26.66	2.428	75.14±10.82	.900
	Moderate ^b	64(44.8)	94.80±20.17	a<c	74.75±30.67		73.75±13.06	
	Unhealthy ^c	9(6.3)	112.89±18.64		95.22±16.13		69.67±13.23	

**p<.01, *p<.05

<Table 2>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according to studying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elf efficacy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Korean language level	Speaking	High	15(10.5)	99.83±20.48	.789	76.40±37.15	.128	93.33±16.37	1.060
		Middle	99(69.2)	94.09±23.70		74.63±27.45		94.09±23.70	
		Low	29(20.3)	99.82±20.48		77.55±27.29		99.82±20.48	
	Listening	High	25(17.5)	91.04±18.18	.528	78.16±33.32	.500	76.24±10.43	.554
		Middle	96(67.1)	96.23±22.87		73.76±27.50		73.49±12.86	
		Low	22(15.4)	95.27±25.06		79.45±26.60		74.82± 9.75	
	Writing	High ^a	18(12.6)	86.72±26.76	2.262	75.56±34.78	.038	80.89± 7.02	3.434*
		Middle ^b	92(64.3)	94.91±21.75		75.80±26.64		73.50±12.77	a>c
		Low ^c	33(23.1)	100.52±20.84		74.21±30.10		72.39±10.97	
	Reading	High	30(21.0)	89.80±21.99	1.271	77.87±27.45	.187	74.83±12.67	.737
		Middle	91(63.6)	95.99±21.49		73.32±28.69		74.29±11.79	
		Low	22(15.4)	99.14±26.28		80.68±28.50		72.82±12.45	
Major GPA	High grade ^a	15(10.5)	73.73±27.69	8.592**	58.67±25.04	3.826*	76.93±17.89	.955	
	Middle grade ^b	108(75.5)	97.31±20.81	a<b,c	76.04±29.17	a<c	74.31±10.76		
	Low grade ^c	20(14.0)	99.70±18.45		84.55±21.10		71.35±13.25		
GPA satisfaction	Yes	6(4.2)	86.00±17.85	-1.024	54.50±22.79	-1.679	66.17±14.65	-1.861	
	No	137(95.8)	95.58±22.56		76.32±28.29		74.35±11.82		
Student satisfaction in Korea	Satisfaction	9(6.3)	74.56±25.82	-2.926**	68.78±28.66	-.723	79.44±11.60	1.364	
	Unsatisfaction	134(93.7)	96.56±24.58		75.85±28.39		73.82±12.10		
Course (after graduation)	Studying ^a	33(23.1)	82.88±24.00	6.643**	74.45±25.44	2.064	73.82±14.02	.369	
	Get a job in China ^b	83(58.0)	100.83±19.75	a<b	75.01±30.78		74.40±10.06		
	Get a job in Korea ^c	10(7.0)	84.30±23.24		71.10±25.37		81.30±16.00		
	Others ^d	17(11.9)	97.82±21.10		81.71±23.85		69.59±13.03		

**p<.01, *p<.05 GPA: Grade Point Average

<Table 3>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N=143)

Variables	Min	Max	Mean±SD	Possible range	Cronbach's α
Acculturative stress	36	152	95.17±22.42	36~180	.94
Social support	32	160	75.41±28.36	32~160	.94
Self efficacy	29	114	74.17±12.01	24~120	.86

테(F=3.174, p=.045)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사후검정(scheffe test) 결과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성별(t=2.719, p=.00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더 낮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학업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을 보면 우선 성적(F=8.592, p=.001), 유학만족도(t=-2.926, p=.004), 학업 후 진로(F=6.643, p=.001)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사후검정(scheffe test) 결과 성적이 상위권인 대상자보다 중위권이나

하위권인 대상자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학업 후에 계속 공부를 진행할 대상자보다 본국에 돌아가 취업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고 한국에서의 유학생 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만족하는 학생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성적(F=3.826, p=.02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성적이 하위권인 대상자가 상위권인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한국어 능력중 ‘쓰기’ 부분(F=3.434, p=.03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쓰기 능력이 높다고 인식한 대상자가 낮음을 인식한 대상자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N=143)

Variable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elf efficacy
	r(p)	r(p)	r(p)
Acculturative stress	1		
Social support	.247(.003**)	1	
Self efficacy	.221(.008**)	.111(.188)	1

**p<.01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하여 사회적지지 (r=.247, p=.003)와 자기효능감(r=.221, p=.008)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111, p=.188)

<Table 4>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 주관적 건강, 학교 성적, 학업 후 진로, 유학만족도,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7가지를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규명을 위해 이들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65미만을 보이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7~1.025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최종 회귀모형은 전공성적(t=3.577, p=.001), 자기효능감(t=3.645, p=.001), 유학만족도(t=3.257, p=.001)로 구성되었으며 17.6%의 설명력을 보였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acculturative stress (N=143)

Variables	β	t	p
Major GPA	.275	3.577	.000
Self Efficacy	.281	3.645	.000
Student Satisfaction in Korea	.250	3.257	.001
$R^2(\text{adj } R^2)=.194(.176); F=11.134(p=.001)$			

논 의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정도 및 그들 간의 관계를 보고,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적인 관점 방안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맞춤형 간호중재 및 프로그램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기

효능감 수준을 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평균 95.17±22.42이 었으며, 사회적지지는 평균 75.41±28.36점, 자기효능감은평균 74.17±12.07점 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 응스트레스 정도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나 김희경 등(2010)의 연구에서의 최고 64점 중 38.50점을 나타낸 결과 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또한 같 은 도구를 사용하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점수가 없어 비교는 불가능 하였으나 모두 중간 값 이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의 평균나이는 22.82±1.74세 였고 이는 김희경 등(2010)의 국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을 본 연구의 대상자의 연령 21.84± 2.14세와 비슷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의 대부분의 전공은 인문·사회학 계열로 이는 대부분의 국내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학과가 인문·사회학 계열이어서 나 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학생들 대부분은 종교가 없다고 응답 하였으며 학생들의 거주형태를 보면 기숙사 거주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 또한 김희경 등(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말하기와 쓰기능력은 읽기와 듣기 능력보다 떨어졌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이수범과 김동우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중국 유학생들의 성적은 대 부분이 중위권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유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김희경 등(2010) 연구에서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 들이 유학생회에 만족을 보임과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결과의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대부분의 유학생이 유학생회에 만 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과 그로 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여 지므로 현 재시점에서 유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중국 유학생들은 학업 후의 진로에 대해 '고국으로 돌아 가서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정희(2008)의 중국 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은 미리 유학생회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며 한국에서의 취업이 생 각보다 어려움을 느끼고 본국에 돌아가 취업을 하거나 계속 학업을 이어서 하려는 모습을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과 학업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에서는 첫째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는 자취나 기타형태의 거주하는 학생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가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성적이 상위권인 대상자보다 중위권이나 하위권인 대상자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학업 후에 계속 공부를 진행할 대상자보다 본국에 돌아가 취업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고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만족하는 학생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국어 실력에 대한 열등감, 향수, 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하위영역을 유사하게 본 김희경 등(2010)의 연구와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김희경 등(2010)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쁜 유학생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김선아(2010)의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학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언어능력은 유학생의 한국생활적응에 대표적인 장벽이라고 언급한 부분과도 일치하였다. 또한 하정희(2008)의 연구에서 언급한 학업,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중국인으로서 받는 소외감과 무시, 미래와 취업에 대한 걱정과도 부분적으로 일치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많이 있으므로 이 같은 영향요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로 사회적지지는 성별과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의 사회적 지지정도가 더 낮고, 성적이 하위권인 대상자보다 상위권인 대상자가 사회적 지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사람 간 상호작용에서 얻는 지지로서 정, 믿음, 도움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오가실 등, 2008),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타인을 사귄 때 좀 더 빠르고 단순한 과정을 거침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지지 체계 활용이 좀 더 원활할 것이라 사료 되며, 성적이 부족한 경우 사회적 지지가 더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하여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더 많은 지원 내지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어 능력 중 ‘쓰기’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쓰기 능력이 높다고 인지하는 대상자보다 낮다고 인지하는 대상자가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정과 유지현(2008)의 연구에서는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가 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에 매개변수로도 작용하였다(권복순, 2009).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언어적 요인 외에 중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본 연구에서 가족의 응집력이나 따뜻한 표현 등의 환경적 요소와 부모의 교육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와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수를 같이 고려해 볼 필요하겠다(Guo, Deng, Liang, & Yan, 2009).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의 큰 세 가지 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하여 사회적지지($r=.247, p=.003$)와 자기효능감($r=.221, p=.008$)이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r=.111, p=.188$)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상관관계($r=.202, p=.001$)가 있었으며(김희경 등, 2010), 여러 연구(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이난, 김현수, 2008; 김광숙 등, 2008)에서도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고 하는 결과(박현일, 김기원, 2001)와 북경에 거주하는 중국 중년 여성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는 결과(김귀분, 석소현, 2010)를 고려할 때, 가족이 없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내적 능력인 자기효능감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동일 대상자가 아님을 고려해 본다고 하여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사회적 지지와는 별개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밖에 연구에서 언급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그 밖의 상관관계 요인으로 우울, 생활 스트레스, 문화적응능력 등이 있었다. 그러나 언급하고 있는 여러 변수들과 그들 간의 관계규명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성적($t=3.577, p=.001$), 자기효능감($t=3.645, p=.001$), 유학만족도($t=3.257, p=.001$)가 있었으며 17.6%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조기유학중인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수연, 2009)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을 제시하였고 영국에 유학하는 일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Greenland & Brown, 2005)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어능력, 지각한 문화적 거리감, 불안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홍콩에서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an, Wong, Joubert, & Chan, 2008), 이수연(2009)의 연구에서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발생한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중재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회귀모형은 17.6%의 약한 설명력을 보였지만 모형을 구성한 전공 성적, 자기 효능감, 유학만족도는 간과할 수 없는 변수이며 이 세 가지 변수가 중국 유학생의 유학 스트레스, 즉 한국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유학제도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수의 유학생이 유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항목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도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학업과 문화적응의 두 가지 과제를 이뤄야 하는 유학생들에게 간호학 분야에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해 줌으로서 이 같은 문제에 좀 더 강한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자기효능감 유학 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신적인 지지 또한 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의미 있는 기초 자료로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로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변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여러 영향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며,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영향요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점차 증가하는 국내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학업증진을 위해 국가차원의 프로그램 및 신체적·정신적 지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 보건실 중심으로 유학생 스트레스 중재를 위한 상담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정도 및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고,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맞춤형 간호중재 및 프로그램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일개 4년제 대학에 유학중인 중국인 대학생이며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총 143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국유학생들은 대부분 높은 언어능력을 요구하는 인문사회 계열 학과에 등록하고 있었으나,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특히 여성인 경우, 성적이 낮은 경우, 유학 만족도가 낮은 경우, 주거형태가 기숙사가 아닌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우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하여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은 각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모형은 전공 성적, 자기효능감, 유학만족도로 구성되었고 17.6%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여러 영향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견고하게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더불어 유학생 개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지속될 관련 연구와 그 밖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중국유학생들의 유학만족을 위한 유학생 스트레스 중재 및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이 많은 일개 학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연구대상자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대상자의 확대 및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영향 요인 규명과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지지를 위한 간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김광숙, 조윤희, 라진숙, 박주영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망 및 건강습관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2), 211-223.
- 김귀분, 석소현 (2010).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비교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2(4), 365-374.
- 김선아 (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7, 57-68.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 51-64.
- 김희경, 손연정, 이미라, 임경춘, 장혜경, 한수정, 양남영, 유명란, 고은자 (2010).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2(2), 143-153.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

-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박지은 (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박현일, 김기원 (2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계명연구논총*, 19, 7-23.
- 오가실, 오경옥, 이숙자, 김정아, 정주자, 김혜령, 전화연, 강정희 (2008). 한국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8(6), 881-890.
- 이난, 김현수 (2008).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23(2), 77-97.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수범, 김동우 (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47-79.
- 이수연 (2009).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2), 45-62.
-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지*, 22(3), 589-607.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교육연구*, 9, 157-176.
- 이영휘, 이영자 (2005). 대학생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생활적응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5(4), 664-671.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통계청 (2009, september 4). 유학생 통계, from <http://www.index.go.kr/>
- 하정희 (2008).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2), 473-49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randt, P. A., & Weinert, C. (1981) The PRQ - a social support measure. *Nursing Research*, 30, 277-280.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nstantine, M. G., Okazaki, S., & Utsey, S. O. (2004) Self-concealment, social self-efficacy,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frican, Asian, and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3), 230-241.
- Greenland, K., & Brown, R. (2005). Acculturation and contact in Japa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United Kingdom.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4), 373-389.
- Guo, R., Deng, S., Liang, J., & Yan, Y. (2009). Influence of family factors on self-efficac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Baise City. *Journal of Hygiene Research*, 38(3), 320-322.
- Henkin, S., Tucker, K. L., Gao, X., Falcon, L. M., Qawi, I., & Brugge, D. (2009). Association of depression, psychosocial stress and acculturation with respiratory disease among puerto rican adults in Massachusett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DOI 10.1007/s10903-009-9307-y.
- Khan, A., & Husain, A. (2010).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positive psychological strength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Reports*, 106(2), 534-538.
- McGinley, M., Carlo, G., Crockett, L. J., Raffaelli, M., Stone, R. A., & Iturbide, M. I. (2010). Stressed and helping: the relations among acculturative stress, gender, and prosocial tendencies in Mexican America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0(1), 34-56.
- Pan, J. Y., Wong, D. F., Joubert, L., & Chan, C. L. (2008). The protective function of meaning of life on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Australia and Hong Kong: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7(2), 221-231.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Kim, Jeong Ah¹⁾ · Kim, In Kyung²⁾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2) Doctoral Student,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not only to collect data o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for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but also to research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acculturative stress. **Method:** Subjects included 143 Chinese students studying at a university located in J city of Chungbuk province in Korea, between September 4th to 20th 2010.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8.0 version,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Acculturative stress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Regression model of the factors that affect acculturative stress consisted of major GPA, self-efficacy and student satisfaction of studying in Korea, with factors explaining 17.6% of the results.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more studies are needed to identify additional different factors that affect acculturative stress as well as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to help students studying abroad to become acculturated and devote themselves to study their studies.

Key words : Chinese, Acculturation, Stress,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In Kyu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C.P.: 82-10-6211-7481 Fax: 82-42-545-8621 E-mail: inkyoung19@naver.com